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생명을 건져 주소서”
선거, 기독교 의석 ‘탈취’ 논란…기독교 정당들 보이콧**



이라크의 기독교 정당들이 최근 의회 선거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와 연계된 단체가 기독교인에게 배정된 의석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총 329석 중 5석을 기독교인 몫으로 공식 할당하고 있으나, 오픈도어에 따르면 선거 제도의 허점으로 비기독교인도 해당 의석에 투표할 수 있다.

그 결과 2021년 선거에서는 기독교 의석 5석 중 4석을 ‘바빌론운동’이 차지했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 칼데아 가톨릭 정당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시아파 무슬림들로 구성돼 있으며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칼데아 가톨릭교회는 “바빌론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또한 바빌론운동은 무장 조직인 ‘바빌론 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 여단은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라크의 한 기독교 법률 전문가는 오픈도어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 의석이 사실상 빼앗겼다”며 “모술 지역은 후보가 모두 바빌론운동 소속이라 기독교 정당 간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기독교인 천명이 투표해도 바빌론운동이 비기독교인으로부터 3천 표를 얻어 승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대표를 결정하는 셈이고, 이는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위 기독교 공동체 대표들이 실제로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유보 의석 제도는 해당 소수민족만 투표하도록 설계됐으나, 2009년 법원 판결로 모든 이라크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취지가 훼손됐다.

한 40대 현지 기독교인은 이번 선거를 “해외에 보여주기 위한 가짜”라고 규정하며 “결과는 이미 정해졌고 후보와 당선자는 선거 전 합의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독교 대표 대부분이 공동체를 대변하지 못하며, 극소수에게도 실질적 권한이 없어 “부패한 선거가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또다시 4년의 절도·뇌물·부패가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시편 120:1-2)

하나님, 명목상 가톨릭 정당이라 하지만 실제 무슬림으로 구성된 단체에 기독교 의석을 탈취당해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라크에 주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자기 이익과 탐심을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그와 짹하여 은밀하게 이를 지원하는 이란 정부를 꾸짖어 주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쏟아지는 악한 계획들을 파하여 주소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교회가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증인 되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새 생명을 얻는 이라크 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제주에서 두 달 새 12건 마약 발견…중국발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긴장 고조

제주 우도에서 중국산 ‘우롱차 봉지’로 위장된 케타민 마약이 또다시 발견되면서, 두 달 사이 발견된 동일 형태의 마약류가 벌써 12건에 이르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14일 보도했다. 최근 제주를 포함한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마약 밀반입·해상 투기 등 범죄 연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제주시 우도 해안가에서 바다환경지킴이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고, 해경이 인근을 추가 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우롱차 봉지 위장 마약’을 수거했다. 모두 중국산 우롱차 포장재를 이용해 포장된 케타민 약 1kg 형태로, 두 달 동안 제주에서 수거된 동일 유형의 마약은 총 12건, 무게는 31kg에 달한다. 이는 10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제주도민 전체가 투약하고도 남는 규모다. 경찰과 해경은 중국산 우롱차 봉지 형태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중국발 해상 투기, 국내 밀반입 조직의 활동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88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약 540만 명에 달해 급증세를 보였다. 내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6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하루 1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인 입국도 이뤄지고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밭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요한계시록 18:4)

하나님,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급증과 맞물려 중국산 우롱차 봉지로 위장된 마약 밀반입 또한 증가하여 마약과 중독의 위태한 상황을 맞이한 대한민국을 주께 의탁 드립니다.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을 행하는 범죄 조직과 어둠의 세력들을 꾸짖어 주시고 끝까지 추적하사 이들의 악한 계획이 파하여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방탕함에 빠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외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신부 된 교회로 이들을 거듭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멕시코,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 참여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범죄 증가와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이른바 ‘Z세대’ 시위가 열렸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5일 수도를 비롯한 멕시코 전역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번 시위는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 청년들이 주도했고 야당 성향의 중장년층도 가세했다. 이들은 마약 밀매 카르텔의 폭력 기승, 정부의 미흡한 대응, 정치권 부정부패 등을 규탄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복면을 쓴 일부 시위대가 대통령궁 주변 안전 울타리를 무너뜨렸고,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하며 강제 해산에 나섰다. 파블로 바스케스 멕시코시티 치안장관은 120명이 다쳤으며 이 중 100명이 경찰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20명이 체포됐다. 시위에 참가한 컨설턴트인 안드레스 마사(29)는 “우리는 더 많은 안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의 시장이 피살되는 등 정치인과 언론인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예레미야 33:6-7)

하나님, 범죄 증가와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가 멕시코 전역에 퍼져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위태한 상황을 주께 의탁 드립니다. 마약 카르텔과 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오랜 시간 근절되지 않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옵소서. 분노한 시위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나라를 위한 평화적 시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때 멕시코 교회가십자가 복음을 소리높여 외쳐 들은바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죄사함의 구원을 베풀시고 주의 평안과 진실하심을 풍성히 나타내 주옵소서.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도다”
발루치스탄, 강제 아동 결혼 금지하는 역사적 법안 통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회가 소녀들을 강제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14일(이하 현지시각) ‘2025년 발루치스탄 아동 결혼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새 법안은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 결혼에 관여하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형사 처벌을 도입한다. 주지사는 곧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결혼한 성인 남성 또는 이를 주선·조장한 사람은 2-3년의 징역과 10만-20만 파키스탄 루피(약 52만-1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아동 결혼을 주례하는 종교인·등기관·위원회 서기는 결혼 전 양측의 전산화된 국가신분증(CNIC) 확인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과 최대 10만 루피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에 따라 모든 범죄는 △영장 없는 체포 가능 △보석 불가 △합의로 종결 불가 △1급 사법 판사만 재판 가능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미성년자의 납치·판매·유혹·강제결혼·인신매매가 수반된 경우 해당 결혼을 무효 VOID로 선언한다. 다만 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적법한 출생으로 인정되며, 부양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새 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모든 아동 결혼을 불법화하며, 일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결혼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 표결은 주 하원에서 격렬한 소동을 불러일으켰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 연단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며 법안 사본을 찢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야당 지도자 유누스 아지즈 제흐리는 이 법안이 “이슬람 교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속한 자맞 울레마-이슬람-파즐(JUI-F)은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유니세프와 인권운동가들은 새 법안을 환영하며, 여전히 16세 소녀의 결혼을 허용하는 편자브와 카이버 파크툰크와에서도 유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편자브주의회 기독교인 의원 에자즈 알람 어거스틴은 “이 법은 종교를 악용해 미성년 소녀를 납치·결혼시키는 강제 개종의 비극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편자브에서 2024년 4월부터 계류 중인 유사 법안의 통과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잠언 2:6-8)

하나님, 거짓된 이슬람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착취로 고통하던 파키스탄의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발루치스탄주의 아동 결혼 제한법을 통과시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사 아직도 소녀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다른 주에도 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인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사오니, 파키스탄에 복음이 선포되어 정의의 길로 행하는 온전한 예수교회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나이지리아 케비주 중학교 무장괴한 침입…여학생 25명 납치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서북부 케비주의 한 중학교에 무장괴한이 침입해 여중생 최소 25명을 납치했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경찰은 납치 과정에서 교직원 1명이 총격으로 숨지고 경비원 1명이 다쳤으며 현재 학생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현지 무장단체 ‘반디트’가 몸값을 노린 민간인 공격이나 납치를 일삼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몸값을 내면 대부분 풀려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장기 억류되거나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14-2022년 나이지리아 학교에서 납치된 학생은 1,68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에는 서구식 교육을 반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보코하람이 동북부 치복 마을에서 여학생 200명 이상을 납치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돋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우어 주는 분이시다(시편 54:3-4, 새번역)

하나님, 중학교에 침입한 무장괴한에 의해 납치된 여중생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구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장단체에 의한 공격과 납치가 끊이지 않는 나이지리아에 죄와 익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지체를 불의한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악의적인 공격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나이지리아 교회를 더욱 진리로 굳게 붙드사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인도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 AI 고인 아바타 서비스에 윤리 논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인공지능(AI) 아바타로 되살려 대화할 수 있는 앱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시스가 영국 데일리메일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미국 AI 스타트업 투웨이(2Wai)의 공동창립자 배우 캘럼 워시가 최근 X(엑스·엣 트위터)에 게재한 앱 광고 영상에는 한 임산부가 앱을 통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 구현한 AI 아바타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자라 소년이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할머니 아바타와 대화한다. 투웨이는 3분 분량의 영상을 토대로 아바타를 생성하며, 채팅봇처럼 상호작용 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잊었던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어 위로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보다, 누군가의 슬픔을 이용하는 ‘비인간적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또 3분이라는 짧은 영상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아바타의 성격을 재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고인을 무한정 ‘부활’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기 가족이 광고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디모데전서 6:11)

하나님,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인공지능 아바타로 만들어 대화하는 앱을 내놓아 윤리·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소식에 주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주여, 가상 세계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대한 감각을 멀게 하는 현대 기술에 대해 몸 된 교회가 깨어 있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라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폴란드교회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 통해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폴란드에는 우크라이나인 임시 보호 수혜자가 99만 5,925명에 달하고 있다. 폴란드 동부 국경에 위치한 오폴레(Opole)에도 지금까지 2만 2,000명의 난민들이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 받아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위치한 오스토야교회(Ostoja Church)는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를 담임하는 마리우슈 무슈친스키 목사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주일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어와 폴란드어로 기도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교회의 기도만 비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도 경험하고 있다고 나눴다. 오스토야교회는 이 도시에서 난민들을 맞이한 첫 번째 단체였다. 처음에는 이곳에 도착한 100여 명의 난민 중 수십 명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교회는 단 이틀 만에 거의 500명의 난민을 맞이했다. 2022년 말에는 그 수가 90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인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튜니지,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페루, 파키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10개국에서 온 신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교회는 가능한 한 많은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고 있고, 학교 기숙사와 호텔 등과 연계해 숙소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교회 내에 생필품과 의료 물품을 지원하는 팀과 이민 서류를 포함해 법적 자문과 교육을 지원하는 팀을 구성해서 난민들의 정착을 돋고 있다. 무슈친스키 목사는 단순히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고, 이제 앞으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이들이 본국이나 다른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하도록 돋기 위함이며, 난민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다. 함께 사역을 섬기는 우크라이나 그룹의 지도자 예브게니 스니차르는 “이 교회에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하는 여러 사람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심을 깨닫습니다”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36-37)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순종이 안식처를 찾아 떠나온 난민들을 향한 실질적인 섬김으로 이어져 지역과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오스토야교회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하신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몸 된 공동체를 폴란드에 더욱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받은 자들도 동일한 하늘의 가치를 따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는 선교적 존재요, 신부 된 교회로 서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전 세계 분쟁 확산…폭발성 무기로 희생된 어린이 지난해 1만 2,000명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미사일과 수류탄과 같은 폭발성 무기에 의한 어린이 사상자가 지난해 1만 2,000명에 달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상자의 70% 이상이 폭발성 무기의 피해를 봤다. 폭발성 무기에 의한 어린이 사상자는 2006년 이후 최고 수치이며 2020년 보다 42% 급증했다. 과거 분쟁지역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나 최근 세계 각지의 분쟁과 전쟁으로 주거지와 학교, 병원 등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늘어나며 어린이들이 직접 위험에 노출됐다. 지난해 가지지구, 서안지구, 수단, 미얀마,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 어린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로 전쟁이 벌벌한 뒤 어린이 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영국지부의 나르미나 스트리세네츠 고문은 “전쟁 중 미사일은 아이들이 잠자고, 놀고, 배우는 곳에 떨어지고 있어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린이”라고 말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이사야 54:13-14)

하나님, 세계 분쟁지역에서 폭발성 무기에 의한 어린이 사상자가 만 이천 명에 달한다는 소식에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그 고통의 무게를 체감하며 주의 궁휼을 구합니다. 이 치명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분쟁지역에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 공의의 터 위에 영혼들을 세워 주셔서 모든 폭력과 공포가 떠나가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이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 “미국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건국 250주년 앞두고 캠페인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신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아메리카 프레이즈’(America Prays) 캠페인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CBN뉴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강조하며, “신앙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고, 신앙이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신념 아래 백악관 신앙국, 반기독교 편향 태스크포스, 종교 자유 위원회 등을 새로 설립했다. 각료회의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고 신앙 없는 국가는 좋은 나라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메리카 프레이즈’는 전국 교회와 사역단체가 함께하는 기도 연합 운동으로, Pray.com 등 디지털 플랫폼과도 협력한다. 브룩 룰린스 농무장관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해 부름 받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을 뿐 아니라, 선하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에베소서 4:2-3)

하나님,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교회와 단체가 함께하는 기도 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복음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모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파하여지게 하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예수 교회의 생명이 미국 전역에 흘러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소서.